

West Kalimantan

2018년 3월 기도편지

배성현·이산정·지은·승은·승우 가족

적도의 땅
폰티아낙을
가슴에 품고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14~15)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은
인도네시아
서부칼리만탄을
복음화시키는
소중한 씨앗으로
심겨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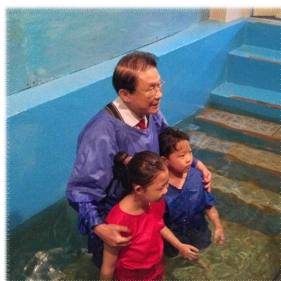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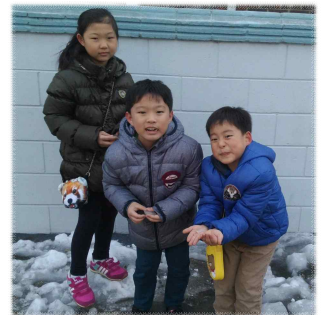
*3개월간의 한국 여정을 마치고...

늘 이곳 적도의 땅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그간 안녕하셨는지요. 먼저 너무나 오랫동안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작년 9월 중순경에 이민국 직원 및 군인, 경찰이 갑자기 집에 들이닥친 후로 자카르타를 오가며 여러 서류들을 다시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스폰서의 실수로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자로는 자카르타 이외의 도시에 거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나마 폰티아낙에 거주할 수 있는 서류 근거를 만들고 새로운 조치를 취하느라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되어 심신이 지쳐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과정이 잘 진행되어서 감사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급하게 처리해야 할 비자 관련 일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아이들 학교 기말 시험이 끝난 후에 저희 가족은 12월 10일에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많은 일정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1월초에는 모교회(불광동성서침례교회)에서 열린 세계선교대회에 참석하여 그간 하나님께서 적도의 땅 폰티아낙에서 이루신 일들을 감격 가운데 나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회가 되는데로 후원 교회들을 방문하여 그간의 후원과 기도에 감사드리는 인사와 함께 선교보고를 하였는데, 분에 넘치는 많은 격려와 사랑을 받는 축복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간 5년 동안 한국을 몇 차례 다녀온 적은 있었지만, 만 5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간 이번 한국 방문은 여러 모로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하얀 눈을 보게 된 삼남매는 눈발을 누비며 신나게 뛰어다니며 좋아했지만, 추위로 인해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에는 한국의 겨울과 눈을 만끽하고 싶다며 애원을 하더니, 정작 한국에 도착한 지 몇 주 지나지 않아서는 빨리 폰티아낙으로 돌아가자고 하더군요. 그간 더운



날씨에 익숙해진 탓인지, 추운 겨울 날씨를 견디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잘 지내주어서 기특하고 대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국 여정 중 가장 제 기억 속에 남는 것은 큰 딸 지은이와 둘째 아들 승온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고백한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믿음 가운데 잘 자라가길 바라며, 아울러 침례 받은 누나와 형을 그토록 부러워하던 막내 승우도 머지않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e-mail: 0212bae@hanmail.net / 인터넷전화(국가번호와 지역번호 없이): 070-4843-9485

후원계좌: 국민은행 048401-04-128048 (배성현) 우체국 013052-02-169596 (배성현)

배성현.이산정.지은.승은.승우 가족

적도의 땅
폰티아낙을
가슴에 품고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14~15)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은
인도네시아
서부칼리만탄을
복음화시키는
중추한 씨앗으로
심겨질 것입니다

* 새로운 5년을 향하여...

선교사로서 첫발을 내딛었던 첫 번째 Term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5년을 향해 또 다른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곳 폰티아낙에서 베풀어주신 은혜들은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역을 함께 할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 주셨고, 짧은 기간 안에 폰티아낙 도시 교회가 개척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지난 5년 동안 정글지역에 있는 깔리마스침례교회 예배당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왔는데, 이번 한국 방문 때 모교회인 불광동성서침례교회의 후원으로 예배당 건축을 위한 비용 1,000만원이 채워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한국에서 돌아오자마자 개강한 한글교실은 현재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밤 7시 30분까지 5개의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1시간 30분씩 다섯 번의 강의를 하고 나면, 온 몸이 파김치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들 중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영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기에, 몸은 피곤하지만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 2월에는 모교회(불광동성서침례교회)에서 청년단기팀이 이곳을 방문해 주어서 큰 격려와 힘이 되었습니다. 단기팀을 통해 폰티아낙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생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이 뿌리고 간 씨앗들이 이곳 인도네시아 영혼들의 마음에 잘 심겨지고 잘 자라서 좋은 결실로 맺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 함께 동역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지난 5년 동안 이곳 적도의 땅 폰티아낙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심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5년 동안 이곳 적도의 땅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역의 결과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동역해 주신 많은 분들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5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는 목사님과 섬기시는 교회의 후원에 힘입어, 적도의 땅에 아름다운 열매가 계속 맺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적도의 땅 폰티아낙에서

배성현 선교사 가족 올림

e-mail: 0212bae@hanmail.net / 인터넷전화(국가번호와 지역번호 없이): 070-4843-9485

후원계좌: 국민은행 048401-04-128048 (배성현) 우체국 013052-02-169596 (배성현)

적도의 땅
폰티아낙을
가슴에 품고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14~15)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은
인도네시아
서부칼리만탄을
복음화시키는
소중한 씨앗으로
심겨질 것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사역의 필요>

1. 임마누엘침례교회
 - (1)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 (2) 신실한 현지인 목회자가 연결되도록
 - (3) 예배당 임대료(한화 약 300만원)가 9월말까지 잘 마련될 수 있도록
 - (4) 예배당 및 한글교실 사역을 위한 상가 매입 비용이 잘 채워지도록
2. 정글교회
 - (1) 칼리마스침례교회
 - ① 예배당 건축이 잘 진행되도록
 - ② C2C 복음전도사역(매주 화요일)을 통해 구원받는 이들이 더해지도록
 - ③ 싸라기목사님 가족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 (2) 뜨른땅침례교회
 - 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 ② 디노목사님 가족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3. 교육법인사역
 - (1) 한글교실
 - ① 현재 약 30명의 수강생이 있는데, 이들의 마음이 복음을 향해 계속 열려져 갈 수 있도록
 - ②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밤 7시 30분까지 다섯 번의 강의(1시간 30분씩 강의)를 감당해야 하는 배선교사의 체력과 건강을 위해서
 - (2) 시골지역 방과 후 교실 사역
 - ① 빠꾸찡(Pakucing) 지역에 실행 중인 방과 후 교실 사역이 잘 정착되고, 아울러 대학 진학을 위해 폰티아낙으로 오려는 청소년들이 임마누엘침례교회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 ② 빠꾸찡(Pakucing) 지역에 이어 두 번째 방과 후 교실 사역지로 염두에 두고 있는 씨루감(Serukam) 지역 학부모 및 마을 지도자들과의 만남이 잘 진행되어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4. 사역이 많아짐에 따라 그에 따른 재정적 필요도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후원교회 및 후원자가 계속 잘 연결되어 이곳에서의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가족의 필요>

1. 가족 모두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비자 수속이 5월말까지 잘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는 6월 6일까지 인도네시아에 머물 수 있고, 그 이후 1년간 더 지낼 수 있는 비자를 새롭게 진행 중입니다. 새로운 스폰서를 통해 비자 수속을 하고 있는데 문제없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5월 중순에 이사를 가는데 이사 과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그리고 필요가 잘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